

2023학년도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수기 공모전



교육혁신원
비교과통합센터

2023학년도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수기 공모전

한걸음이 어렵지 두걸음은 쉬워	55
하나의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꾼다	57

[최우수상] 안전지대, 나를 일어서게 하는 공간의 힘에 대하여	4
[우수상] 토론을 통해 스스로 성장했던 학습공동체를 되돌아 보며..	7
[우수상] 나만의 대학 일기 만들기	10
[장려상] 대학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발판	13
[장려상] 세상의 따뜻한 면을 알려준 HOPE CAMP	16
[장려상] 물리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다	19
[장려상] 학습과 공동체를 둘 다 잡은 학습공동체	22
[장려상] 넓은 시야를 위한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	24
학교 다니면서 CTL 서포터즈는 한번 해봐야죠!!!	26
주체적 사고를 위한 창과 방패	28
모든 대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할 특강, "스피치 마스터 특강"	30
우울하세요? 함께 뛰어봐요! "RUN TO THE BONE"	32
그렇게 공간속으로.....	35
심포가 필요한 이유	37
최고의 프로그램 콩콩마켓	39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첫걸음, 나를 정리하기	42
새내기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은 CTL	45
STEP-UP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47
많은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SU-PANEL 활동	49
RE : EARTH, 자연과 함께한 소중한 3일	51
아낌없이 주는 SYU	53



안전지대, 나를 일어서게 하는 공간의 힘에 대하여

상담심리학과 최유진

**“아름다움을 창조하라, 오감을 흥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에 자양분을 주기 위해.”
- 가브리엘라 미스트랄(Gabriela Mistral)**

우리에게는 안식처가 필요하다. 단순히 몸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말이다.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하며, 우리는 안식처 보다 불안과 피로를 가중 시키는 공간에 더 오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와 맞지 않은 다양한 관계들과 함께하며, 늘 복잡하게 계산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현실 속에서 안식처는 어느 곳에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사실, 본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 전 나는 많이 지쳐있었다. 진로에 대한 솔한 고민과, 방향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취업과 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어느 방향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쉬이 결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까? 이 시기에는 편하게만 느껴지던 침대가 악몽의 공간으로 변질해, 나를 더 불안하고 갑갑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집'이라는 공간마저 불안과 초조함으로 도색 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곳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이 초조하고, 불안했다. 그때 알게 된 프로그램이 바로 <(혁신)정서조절 집단상담- 안전지대 만들기>이다.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온전히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해답을 얻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

[저마다의 공간을 탐색해 보며]

본 프로그램은 총 3시간 동안 진행 됐고, 2부로 구성 되어있다. 1부는 내가 편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명상과 호흡을 통해 온전히 탐색하고, 집단원과 나누어 보는 시간이었다. 곧바로 이어진 2부는 그 공간을 좀 더 특별히 만들어 줄 나만의 애착 인형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내가 편하게 느끼는 공간의 온도, 맛, 향기, 촉감을 느껴보세요.' 상담자 분의 진행에 따라 편안한 마음으로 빈 공간을 나의 기호로 채워나갔다. '나는 숲을 좋아하던가, 바다를 좋아하던가?' 간단한 물음이 나의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그리고는, 나는 내가 여행을 가며 좋다고 느꼈던 공간들을 하나 둘 그려 나갔다. 내가 부산 여행을 갔을 때, 높은 언덕에 있는 서가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 보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 부는 바다의 짝조름한 향과, 피부에 닿는 선선한 공기가 나에게 큰 위안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또, 나는 부들부들한 촉감의 담요를 덮고 있었고, 그 속에서 안락함을 느꼈었다.

나의 안전지대를 상상한 후에는, 집단원 끼리 그 공간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저마다의 공간은, 저마다의 취향이 한 가득 물어있었다. 누군가는 집을 떠올리며 이야기 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나처럼 여

행지를 떠올리기도 했다. 나는 타인과 서로의 안전지대를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안정감을 취하는지 배워갈 수 있었다.

집단상담이 주는 힘은 바로 이 집단원들 사이 역동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서로의 발표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그 자체 만으로 나는 치유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나와 같이 부산을 배경으로 한 안전지대를 떠올린 집단원을 만났을 땐 공감이 되기도 했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저마다 상상한 공간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며, 타인을 보다 넓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저마다의 추억과 기억이 만들어 낸 공간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멋졌고, 서로에게 짐이 되는 회한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내 공간을 채워나가며]

나만의 안전지대를 찾는 것 만큼, 나만의 공간을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내 공간 안에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 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 위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2부에 '모루인형' 만들기를 진행했다. - 모루는 털이 감겨 있는 철사를 의미한다. - 난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없던터라, 인형을 만들기에 앞서 걱정이 휘몰아쳤다. 완성을 못하면, 오히려 정서적 안정이 아닌 스트레스가 쌓일 것만 같았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모루를 구부려 모양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쉬운 난이도였고, 나는 차분히 만들기 과정에 집중할 수 있었다.

다른 집단원과 서로 만드는 과정을 공유하고, 도움으로써 결과물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되었다. 서로의 인형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부자재는 교환하고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 과정 속에서 느낀 따뜻함은 오래 유지 될 것만 같다.

2개의 인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는 친구에게 선물해 줄 생각이었다. 친구 역시 손 닿는 곳에 이 인형을 두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질 것만 같았다. 나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떠올리며 만드는 과정이 괜스레 더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다.

[프로그램 이후의 나]

정서와 공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개인의 감정은 그들이 머무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반대로 개인이 조성한 공간은 그들의 감정을 조절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나만의 안전지대를 가꾸는 일은, 어쩌면 나의 마음을 돌보는 일과도 같다. 내 마음이 구석 구석 닿아 있는 공간은 안식처 너머, 새로운 활력이 되고 나를 격려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나는 본 프로그램을 삼육대학교 재학생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사실, 우울과 불안은 격동기의 대학생들 모두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을 타인과 나누고 스스로 대처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은, 스스로의 정서를 다루는데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정서 조절에 있어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큰 효과성을 입증한다고 보고된다(장석진, 연문희, 2019). 나처럼 방황하는 청춘이 있다면, 꼭 그 힘들을 털어두고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후문 유치원 반대편 건물에 위치한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매학기 다양한 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재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프로그램 이후, 나는 내 공간을 나의 기호로 다채롭게 꾸며 나가고 있다. 손 닿는 곳에 모루 인형을 배치해서, 어디서든 내가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중이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인형을 배치해 두니, 나뿐만 아니라 내 자리를 지나치는 모든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어쩌면 이 인형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모두를 긍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나는 타인과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해 나가며, 한 걸음 성장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찾고 나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하며, 수기를 마친다.



토론을 통해 스스로 성장했던 학습 공동체를 되돌아 보며..

약학과 백민규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소개]

저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고, 이번 학기에는 매일 아침 1교시 수업이 있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2학기에는 삼육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수료했습니다.

영역	운영부서	수료한 프로그램
자기계발	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	Skill Up! 자기주도학습법 Skill Up! 정보처리법 Skill Up! 집중력향상법 2023-2 6주 완성 ChatGPT
전공학습		2023-2 성적향상 학습공동체(4주차 과정) 10월/11월
기초과학		2023-2 흥미진진! 대학생을 위한 기초 수학 2023-2 흥미진진! 대학생을 위한 기초 물리
IT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	10월 배워 바로 쓰는 파워포인트_10월 ChatGPT를 활용한 취업준비 교육_9월
외국어		9월 모의토익경진대회
인문학	스미스학부대학	온라인특강_영미시에 나타난 동양사상의 특징들 온라인특강_도시의 산책자

[학습공동체 활동이 특별했던 이유]

자기계발 부분부터 인문학 영역까지 학교에서 보내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강의를 듣고 동기들과 스터디를 하며 한 학기를 채워 나갔습니다. 학기 중에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료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고, 결과적으로 2023년 포트폴리오를 알차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위에 표로 정리해 둔 것처럼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을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던 성적향상 학습공동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학기 중에 혼자 공부하기 어려웠던 '약물치료학' 과목을 재수강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성적향상 학습공동체 덕분에 무사히 6학년 실습을 나갈 수 있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주 활동 학습공동체에 선정되다]

그동안 학습공동체 활동은 학기 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학기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도 약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첫 학기에 4학년 선배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학습공동체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배들이 약물학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약용식물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학습공동체 활동이 의미 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동기들과 스터디를 해 보고 싶어 여러 번 학습공동체에 신청했었지만, 매번 선발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학기 중간에 활동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 4주 차 과정이 추가되었다는 공지 글을 보고 바로 신청해서 감사하게도 10월, 11월 학습공동체 4주 차 과정에 각각 선정이 되었고, 두 과정 모두 일반수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브루타를 통해 주도적으로 성장한 학습공동체]

약학과에서 배우는 교양 수업 중에 기독교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해에서 배웠던 바벨탑, 공중정원, 지구라트와 같은 건축물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 외에도 유대인들의 교육방식인 하브루타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브루타는 나이, 계급, 성별과 관계없이 두 명이 짝을 지어 서로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는 것을 의미하지만, 저희는 이런 규칙에 매달리기보다는 토론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중앙도서관 3층에도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도 토론 방식의 학습 방법을 장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을 놓칠 수 있고, 자신 없는 파트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스터디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공부할 과목은 약학과 3, 4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약물치료학' 과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배우는 질환에 대해 큰 흐름을 잡고 각각의 질환에 어떤 약물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하며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고 채워 나갈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물론 시험 직전에는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스터디에서 토론을 통해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보기 쉽게 만드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는 학습공동체 학습 시간 동안 교수님께서 강조했던 내용을 더블 체크하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정리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빈칸이 뚫린 문제들을 준비해서 시험에 나오는 주관식 문항들을 대비했습니다. 약물치료학 과목 특성상 약물의 용량, 농도 단위와 투약 횟수가 매우 중요했고, 교수님께서도 항상 세세한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제작하며 주도적 학습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생각이 들어 힘든 적도 있었지만, 10월, 11월 두 번의 성적향상 학습공동체 4주 차 과정 동안 동기들과 서로 응원하며 공부했고 무사히 5학년 2학기를 마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학습공동체 활동을 추천하는 이유]

학습공동체 활동의 장점은 스터디를 강제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과자, 음료수 등 다과를 제공해 주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대여해 준다는 점입니다. 미리 예약만 하면 다니엘관 5층 스터디 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구하기 힘든 먹태깡을 준비해 주셔서 기분 좋게 스터디를 한 기억이 납니다. 또한, 오픈 카톡방을 통해 관리자 선생님께서 유연한 스케줄 관리를 해 주십니다. 학습공동체 4주 스터디 과정상 정해진 주차에 2회 모임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10월 첫째 주에는 체육대회와 학교 축제가 있어 공부할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2주간 서울대학교 제약공장에서 실습이 있어서 학습 모임을 갖지 못해 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관리자 선생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기존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일정의 보고서를 받아 주셨습니다.

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며 많은 것이 만족스러웠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10월 학습공동체에서 일반수료로 마무리해서 11월에는 우수수료를 노렸음에도 일반수료에 그친 것입니다. 다음 학기에도 학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면, 부족했던 것은 보완하고 잘했던 내용들은 발전시켜 더 나은 학습공동체 스터디를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고 싶은 동기나 선후배가 있다면 학습공동체 활동을 꼭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나만의 대학 일기 만들기

약학과 김용준

프로그램 참여동기

삼육대에 입학하고 든 생각은 삼육대에서는 장학금을 다양한 경로로 받을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 수토리에 관해 알게 되었고, 수토리에 글을 올려서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토리는 전공/교양 학습, 비교과 활동 등 대학 생활 전반의 경험 및 경력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블로그형의 e포트폴리오 사이트이며, 저의 포트폴리오를 다른 학생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 대학 생활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곳에 글을 올리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딱 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토리를 앞으로 잘 이용해서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잊지 않고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모전 참여

우수포트폴리오 공모전은 활동 등급을 기준으로 수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게시물, 댓글, 좋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급이 나누어지며 특정 활동 등급을 달성하면 선물이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Grand Master 등급은 1학기 때 Master 등급에 달성한 사람들에 한해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1학기 때 Master 등급이었기에 이번 2학기 때는 Grand Master 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실제 게시물은 25개를 넘게 작성했고, 활동 등급 달성과 관계 없이 추가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어떤 내용을 적을지 항상 메모 해놨다가 작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활동한 내용을 정말 다양하게 작성했습니다.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의 과제나 활동,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후기, 봉사 활동을 다녀온 소감 등 저의 1년 활동 내용을 빠짐 없이 적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게시물 내용은 활동 참여 동기와 활동 내용, 느낀 점, 추천할 만한 점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 러닝포엔젤

러닝포엔젤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 아래 '약플'이라는 약대생 및 약사 커뮤니티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최한 기부달리기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약대생 및 약사 참가자가 달린 거리만큼의 기부금이 책정되는 방식으로 기부하는 활동인데, 평소에 러닝을 즐겨했던 저는 행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기부금 전달 시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였습니다.

52.01km를 달리고 챌린지 목표인 50km를 달성한 모든 참가자에게 수여하는 상인 완주상을 받았던 기록, 커뮤니티 게시판에 러닝 인증 게시물을 올리면 그 중에 추천해서 주는 상인 약플 인증상을 받았던 기록, 참여 소감문을 가장 잘 쓴 3명에게 주는 치킨 기프티콘을 받았던 기록까지, 수토리를 작성하면서 그 때의 기억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과 추천하고 싶은 이유

수토리만의 매력은 바로 자신의 게시물을 다른 학생에 보여줄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전공의 학생이 올린 게시물을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보는 곳에 기록을 남긴다면 대충 적을 수도 있지만, 저만 보는 게시물이 아니다 보니 게시물을 쓸 때 독자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더 정형화되고 완성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다음에는 글을 이렇게 더 다듬어서 작성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SNS를 하는 것만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올린 게시물을 읽어보며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구나', '오, 이건 정말 좋은 활동 같은데 나도 참여해볼까?'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동기부여도 되고 몰랐던 여러 활동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타과생들과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 다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어떤 대학 생활을 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는데, 수토리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대학 일기 만들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참여한 활동과 이룬 성과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기록한 수토리 게시물을 다시 읽어보면서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이 대견하다고 느꼈고, 이는 다음 학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원동력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초반에 썼던 글들의 피드백을 통해 나중에 쓴 글은 더 정형화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과 더 불어 나아진 부분까지 파악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글을 구성하면 좋을지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작은 경험이 하나하나 모여 25개가 넘는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대학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발판

건축학과 곽수한

콩콩마켓에 대해 먼저 소개해 보면 액세서리, 디저트, 음식 꽃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해 보면서 사회에서 나가기 전에 창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자기들마다 자신 있는 상품들을 가져와 학생들에게 판매하면서 다양한 피드백과 교훈을 얻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위대한 발판의 시작 ”

우리는 평소처럼 동기 4명과 점심을 먹던 와중 학교 주변에는 최근 유행하는 탕후루 가게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변에서 탕후루를 팔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며 돈을 쉽게 잘 벌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러던 와중 마침 '콩콩마켓 셀러모집' 이라는 수톡 알리를 받고 참여하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하지만 완벽히 조리된 음식만을 판매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대로 실패하나 팀원들 서로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문득 녹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에 새벽에 만들어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면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실행해 보았다.

샤인머스켓 탕후루와 딸기 탕후루 두 종류를 처음에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쉽게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만드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 딸기는 제철이 아니어서 냉동 딸기로 진행해야 하는데 물기가 있어 설탕 코팅이 쉽게 되지 않아 팔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탕후루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서 팀원들과 고민하던 중에 과거 제과기능사를 준비하기 위해 에그타르트와 호두 파이를 만들어보았는데 주변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게 생각났고 혹시 모르니 내가 다른 음식도 준비한다고 이야기 했다.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우리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트와 인터넷 사이트들을 찾아보면서 상품을 먼저 조사했다. 물론 맛이나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모든 걸 따져가면서 구매한 후 콩콩마켓 당일 새벽에 자취하고 있는 친구 집에 모두 모였다. 전날 저녁에 에그타르트와 호두 파이를 만들고 당일날 새벽 친구 집에 모여 다 같이 탕후루를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냉동 딸기가 다 녹아져 있었고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새벽 동안 계속 샤인머스켓 탕후루만 만들게 되었다.

“ 콩콩마켓은 사랑을 나눈다. ”

콩콩마켓 당일 에그타르트와 호두 파이 샤인머스켓 탕후루를 세팅하고 물건을 판매했다.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우리 부스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판매한 음식을 먹고 이상하다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부스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점차 구매하러 오자 불안감은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음식을 판매하면서 사람들과 오가는 대화 속에 행복해져 있는 친구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확인한 것을 보고 놀랐었다. 평소의 공부만 하는 동기들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었

던 것 같다. 첫 번째 날에 시작한 지 두 시간이 되지 않아 준비된 음식들이 모두 매진이 되어서 팀원들이 행복했고 다 같이 웃으면서 다음날을 위해 준비할 수 있었다.

음식을 판매하던 중 단순히 대학생들만 있을 줄 알았던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어르신 분들과 중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까지 구매하러 와주셔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내 음식을 판매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을 한 것 같았다.

그 중 한 중학생이 첫날 에그타르트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또 왔다고 하면서 사탕을 같이 주었던 기억이 당시 마음이 따뜻했기에 기억에 남았다. 또 어떤 손님은 '카페 사장님께서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서 어디서 파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서 너무 맛있고 잘 만드셨어요.' 라고 하셔서 어깨가 으쓱 올라갔었던 것 같았다. 이 밖에도 저번에 콩콩 시장에 참가했던 셀러분이 오셔서 '저는 초콜릿을 만들어 팔려다가 망해서 제대로 못 팔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거예요?'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면서 평소 학교에서는 인사를 하지 못한 동기들과도 얘기해 볼 수 있었고 다른 과 학생과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어서 그동안 준비한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

“콩콩마켓은 왜 중요한가?”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대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턱대고 사회에 나가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청년 자영업자가 요식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적다는 통계를 보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미리 경험 해보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콩콩마켓을 해보면서 다양한 실패를 겪고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미리 체험에 볼 수 있게 해준다. 또 대학 일자리 본부의 계신 팀장님께서 사전에 컨설팅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게 해주신다. 이점이 대학교 아니면 누가 이러한 지원을 해주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밖에 좀 더 보완했다면 좋을 점은 단순히 2일과 같이 짧게 창업만 하는 것이 아닌 매출이 잘 나온 상위 팀들에게는 작게나마 한 달 정도 교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더욱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변에 요식업이나 상품을 판매할 친구가 있다면 콩콩마켓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재료비 말고는 크게 돈이 드는 것은 없고 다양한 교훈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만약 실패하게 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의 실패를 보완해 성공할 수 있는 나침표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노력하면 안되는 것은 없다”

이번 콩콩마켓을 참여해 보면서 초반에 경험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업에 어려움과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히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것보다, 원가계산 제품의 질, 재료 구하기와 같은 다양한 상황과 같이 말이다. 다양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많은 학생, 어르신, 교수님들께서 구매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면서 행복했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되는 것은 없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또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에게 판매한다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삼육대학교에서 이룰 수 있었음에 행복하다. 책에서 읽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학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발판”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주기적으로 콩콩마켓에 참여하여 에그타르트, 호두파이, 탕후루 뿐만이 아닌 다양한 제과들을 선보인 후 경험을 쌓아 이것을 통해 사회에 나가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의 따뜻한 면을 알려준 HOPE CAMP

컴퓨터공학부 이서진

HOPE CAMP로 떠나게 된 이유는

10월 30일에 다녀오게 된 HOPE CAMP는 내가 2년간 학교에 다니면서 진행한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다. 1학년, 영어영문학과로 진학해 그럭저럭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하다가 2학년으로 올라와 갑작스럽게 진로의 방향을 틀어 컴퓨터공학과로 전과하게 되었다. 겨우겨우 1년 학교를 다니며 이제서야 학우들과 친해졌는데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에 험난한 길이 예상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내향형인 나는 과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했다. 1학년 때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건너뛰고 2학년부터 시작하려니 마음부터 잘 잡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받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나조차도 친해지고 싶은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나에게 다가와주는 사람들도 딱히 없었다. 성적 또한 매우 처참한 1학기를 보내고 2학기가 시작되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들었다. 무조건 종강하고 나면 여행이라도 혼자 떠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와중 학교 홈페이지에 HOPE CAMP 공고가 올라왔다. '이런것도 있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글을 읽어 내려갔다. 딱히 후기도 에타에 올라온 글 한 두 개 뿐이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래 뭐라도 하자. 이렇게 심심하고 하고싶은것도 없는데 돈이 드는것도 아니고 한번 가서 힐링이나 하고 오자.' 이런 마음으로 무작정 친구 한 명을 구해서 캠프를 신청했다.

CAMP의 본격적인 시작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짐을 싸다보니 설레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편견없이 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다. 당일이 되어 모든 수업을 마친 뒤 캠프 장소로 이동했다. 가장 큰 텐트 안에는 조교님이신 것 같았는데 날 보더니 반갑게 반겨주셨고 제일 먼저 도착한 나를 위해 스몰토킹을 주도해주셨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많이 노력해주시는게 느껴져서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다들 어색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점차 흘러 안 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모였고 미니 게임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다. 가장 먼저 각자 무슨 과의 누구인지 자기소개를 했고 조교님의 주도 하에 빙고게임을 했다. 단, 진 사람 두명이 다음날 아침 설거지를 맡는 것이었는데.. 각자의 취향을 적는 빙고에서 내 취향이 이상했던걸까 최후의 2인이 되고 말았다. 10월 말이라 꽤나 쌀쌀했는데, 얼음장 같은 날씨에 설거지를 하게 되었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다음날 아침에 늦잠을 잤는데 다른 분이 이미 해 두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다.

직후에 조교님께서 버너와 라면 여러 봉지를 가져다 주셨고 우리는 다같이 협동해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재빠르게 버너를 설치하고 라면 물을 받아오고, 순식간에 각자의 앞접시와 물컵은 누군가로 인해 채워져 있었다. 기울어진 테이블에서 라면을 쏟은 적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주저하지 않고 주변에 다친 사람은 없는지 확인했으며 다 같이 어디선가 치우는 도구들을 가져와서 라면을 바로 치울 수 있었다. 혼자였으면 이 모든걸 치우는데 오래 걸렸을텐데 다 같이 하니 진짜 빠르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인 라면은.. 싱겁고 찐다. 한쪽 냄비의 라면은 너무 싱거웠고 한쪽은 너무 찐는데 다 같이 노력하고 먹어서 그랬던걸까, 라면 맛은 딱히 중요하지 않았다.

역시나 다 먹은 라면의 뒷정리도 벌써?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빠르게 되었고 나 또한 바빠 움직였다. 배도 부르고 날은 어둑해지는데 와중에 베이스 텐트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있었다. 밖은 우리를 빼고 이상하리 만큼 고요했고 풀벌레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한참 밖을 바라보는데 조교님이 육사오라는 영화를 준비했다고 하시고 들어본 적도 없었기에 별 생각하지 않고 영화를 봤다.

근데 웬걸 진짜 재미있었다. 내가 이런 코믹 영화를 최근에 본적이 있었던가, 본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리내서 크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영화가 즐거웠던건지 그 하루가 즐겁고 힐링되는 하루였기에 마음이 평화로워 맘놓고 웃었던걸까, 나는 양쪽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따뜻했던 캠프파이어

한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집중해서 끝까지 영화를 보고 나니 밖에서는 불을 피우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들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유튜브에서 불멍을 때린다거나 불 ASMR을 들으며 잠들기도 했었다. 그런데 캠프파이어라니,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에 딱이었다.

다같이 불을 중심으로 담요를 덮고 빙 둘러앉았다. 이젠 정말 캄캄하게 날이 어두워졌고 타들어가는 나무, 학우들의 즐거워하는 얼굴만이 불에 비쳐 보였다. 주섬주섬 받은 마시멜로우를 꼬치에 꽂아 모두가 누가 더 잘 굽는지 경쟁하듯이 열심이었고, 각자가 가져온 간식들을 서로에게 나눠주며 담소를 나눴다. 다들 즐거웠던걸까 불이 꺼지면 가져온 연료가 바닥날때까지 다시 피워달라고 조교님께 부탁드려 최대한 모여있었다.

캠프파이어는 하는 내내 너무나도 따뜻했는데 그건 아마도 캠프파이어의 불뿐 아니라 서로의 온기였을 것이다.

마무리 되어가는 HOPE CAMP

잠을 자기 위해서 모두 간단하게 세안이라도 해야 했기에 조교님이 알려주신 위치로 모두 같이 이동했다. 사무실관 뒤쪽에 캠프장이 있었는데, 그 건물은 내가 영어영문학과일 적에 사용했던 건물이었다. 학교에 늦게까지 있을 일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처음 봤는데 꽤나 으스스했다. 혼자였으면 아마 열려있는 건물까지 뛰어갔을 것이다. 도착해서 차례로 씻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넘어온 뒤 불이 꺼진 캠프파이어 주위에 많은 이들이 둘러앉았다.

이야기를 하다 피곤해진 사람들은 각자의 텐트로 들어와서 전기장판을 키고 잠들었다. 외부 날씨는 추웠

지만 장판이 너무 따뜻해 텐트 내부는 아늑했고 이 하루가 끝나간다는 사실에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하루를 보내며 좋은 사람들과 연이 닿아 이곳에서 만나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협동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또한 술이 없는 건전한 자리이기에 나의 건강한 정신으로 이 캠프를 온전히 느끼고 나갈 수 있었다. 이 점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다. 조금 더 힘내서 남은 2년의 학교 생활을 의미 있게,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로 삼아 나 또한 누군가 만나기를 고대하는 멋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변의 풍경, 모두의 마음이 너무나도 힐링되는 캠프였고 분명히 다음에도 나는 또다시 참가해 좋은 사람들과 연을 이어나갈 것이다. 나의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진행될 HOPE CAMP의 진정성 있는 후기로 남아 다른 학우들의 캠프 참여 의지를 불태워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물리와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다

바이오융합공학과 김예지

-범접할 수 없었던 물리

처음 물리라는 과목을 접한 것은 중학교 때였다. 통합 과학에는 생명, 화학, 물리 등 과학에 다양한 파트가 있었는데 그중 유독 물리는 공부하기가 싫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다. 주변에서 물리는 정말 어렵고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많이 들었던 터라 흥미가 더욱 떨어지고 두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물리라는 과목을 들으려고 하니 작은 그래프와 간단한 식이 하나라도 나오면 겁을 먹게 되었고 내용을 이해하기 보다는 무작정 식만 외우게 되었다. 그렇게 기초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시험을 보니 점수도 엉망이고 점점 물리라는 과목과는 더 멀어져 갔다.

이후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정할 때 당연히 물리는 무조건 빼고 선택과목을 정하게 되었다. 물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었던 상태이기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는 물리에 대한 공부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으며 평생 내가 물리를 공부할 일은 다시는 없다고 생각했다.

-물리와 조금 더 친해질걸...

하지만 중학교 시절을 되돌아 볼 때 아쉬움을 꼽아보자면 물리에 대한 기초개념을 다지지 못한 것이었다. 그 때 물리에 대한 겁을 안 먹었더라면... 기본개념을 쌓았더라면... 지금의 전공과 관련하여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 만약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물리와 조금 더 친해져 열심히 공부 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아쉬움만 남긴 채 대학교에 오게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물리를 한 번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는 다짐을 하였다..

-찾아온 기회

학교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 교육혁신원에서 하는 SU-EBE 기초 물리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생각만 해왔던 물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나 같이 물리와 담을 쌓은 사람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움직였다. 물리와 한 번 친해져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신청하게 되었다.

-물리에 첫발을 내딛다

기다린 만큼 물리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또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매우 컸다. 서문에서 강의자님께서 이 강의의 목표가 물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자함이 아닌 물리와 익숙하고 친숙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익숙함이 계속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겨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신다. 강의자님께서도 물리를 전공하셨지만 아직도 어렵게 느껴진

다고 많이 공감해주셔서 물리 입문자로서 위안이 되었다. 물리 공부를 강의자님의 개인적인 예시에 적용해서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물리, 시작부터 쉽지 않아...

첫 강의를 듣는데 모르는 기호들이 아주 많았다. 조금 겁을 먹었지만 강의자님께서 기호와 연산자 하나하나씩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물리라는 과목의 특성상 어려운 만큼 강의자 분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다.

-물리에 점점 다가간다

이 강의만의 장점이자 특별한 점은 바로 강의자님께서 하시는 개념 강조라고 생각한다. 어떤 다른 과목을 배울 때 공식이 나오면 대부분의 강의자님께서 외워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물리를 가르치시는 강의자님께서 기본 개념이 중요하며 고등학생이 아니기에 이해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설명하셨다. 단순히 도출된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과정을 설명해주신 부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다. 기본 개념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강의자님께서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신다. 한 사례로 벡터에서 방향과 같은 경로이면 벡터의 값이 같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다. 온라인 강의 특성상 질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통은 인터넷을 찾아본다. 하지만 강의자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궁금증을 먼저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

10차시에서 중력에 관한 설명을 다루는데 그중 뉴턴의 중력법칙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 중학교 시절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쓰인 책 치고는 너무 정교하고 전문적이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그런 책을 물리 강의에서도 보니 신기하면서도 반가웠다. 보통 문제를 풀 때 중력가속도를 제시해 주거나 어림잡은 값으로 계산해서 중력가속도는 원주율처럼 항상 일정한 줄로만 알았다. 너무 복잡해서 임의로 값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구는 완벽한 구형도 아닌 약간의 타원형이기 때문에 위치마다 중력가속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쿨롱 법칙, 가우스 법칙 등 법칙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아파왔다. 사실 앞에 내용도 다 이해하지는 못하긴 했고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내용이 서로 연결되고 뉴턴의 법칙이 가우스의 법칙과 연결되고 서로 적용되는 부분이 헛갈리기 시작했다. 선속이라는 개념은 처음 접해봤다. 여기서도 벡터의 개념이 적용되어서 물리학에서는 다 연결되는 느낌이라 개념을 잘 잡아놓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물리에는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 다 기호가 영어로 되어있고 가끔 강의자님이 가져오신 논문이나 찾아오신 부분에도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다. 이상하게 생긴 기호와 영어가 섞이니 정말 혼돈 그 자체였다. 한 번은 도체와 유전체의 자기장 파트에서 전기장이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어려웠다. 그림 자체도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몇 번이고 계속 다시 돌려봤는데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물리의 어려움을 이때 정말 많이 느낀 것 같다. 반복해서 들으니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이해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서 인터넷도 도움을 얻고 유튜브 강의도 따로 찾아봤다. 공부라는 것이 내가 직접 스스로 찾

아서 해야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 그 경우라고 느꼈다. 내가 궁금증이 있어 더 알아보고 싶어 찾으려고 배우는 과정에서 다른 개념도 복습하는 부분도 있었고 내 자신이 많이 성장 한다고 느꼈다.

-물리와 친해지다

기초물리 강의를 다 듣고 난 소감을 한 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와!'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완벽하게 물리를 공부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강의자님께서 기초 개념부터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물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고 친숙함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강의자 분께서 물리에 대한 친숙함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개인적으로 물리 공부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공부 방법을 알게 되었다. 모르는 부분을 직접 찾아가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분명 그 과정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한층 더 성장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의는 너무 유익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15차시가 분명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게 느껴질 만큼 물리에 대한 흥미가 생긴 것 같다. 물리라는 과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물리에 대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물리는 어렵기 때문에 인생에서 배울 기회도 흔하지 않고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막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물리 강의를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기초 개념을 쌓고 싶고 물리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



학습과 공동체를 둘 다 잡은 학습공동체

화학생명과학과 김민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참여해왔던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올해도 동기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학습공동체는 팀원들과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보내며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고, 목표에 따른 계획을 실천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습공동체는 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스터디룸과 다과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학교 도서관 이외의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스터디룸을 예약하면 받을 수 있는 다과는 열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다과는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어 팀원들과 학습공동체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전 학기부터 꾸준히 참여해왔지만, 특히 이번 2023학년도 2학기에 학습공동체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공부하며 얻은 장점이 많아 이렇게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 번째로,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저번 학기만 하더라도 한 학기 동안 주어진 횟수와 시간만 채우면 이수할 수 있었던 조건이 올해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학습공동체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팀원들과 시간을 맞추는 것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끝난 후 정해진 시간에 학습공동체를 진행할 수 있어서 규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팀은 학습공동체 전공 과목 수업이 끝난 직후 주로 진행했기 때문에 복습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명이 학습공동체인 만큼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대학교 전공 공부는 이전까지 해왔던 공부들과는 다르게 혼자서만 공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팀원들과 함께 학습공동체를 진행하면서 수업 때 놓쳤던 부분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을 같이 정리하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퀴즈를 만들어 푸는 것이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혼자서 공부를 했다면 부족한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다뤄야 했지만, 다같이 공부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다른 공부를 하는데도 부담이 많이 줄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1학년 때부터 많은 양의 전공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데, 항상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 시험기간 끝무렵에는 부랴부랴 전체 내용을 보는데 급급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 학습공동체를 진행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미리미리 공부를 할 수 있어 학습 습관을 잡을 수 있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동시에 다른 팀원들의 공부 방법과 유용한 팁들을 서로 공유하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더불어, 학습공동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공부가 잘 잡혀 있어야 팀원들과 다같이 하는 공부할 때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 공부를 꾸준히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 필기를 공유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도 더 집중하려 노력했고, 서로 모르는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하기 위해 개인 복습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4회 이상 학습공동체를 참여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나에게 정말 잘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수료와 우수 수료의 혜택이 달라 우수 수료를 위해서 팀원들과 보고서도 열심히 쓰고 활동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졸업 전까지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넓은 시야를 위한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

약학과 송화윤

[1. 프로그램 소개와 참여 동기]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은 이름 그대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글을 써보는 스미스학부대학 주관의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삼육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저는 고등학교 내신 챙기기 바빠서, 반수 생활만으로도 벅차서 등의 이유로 뉴스 헤드라인만 읽으며 사회적 이슈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지망으로 원하던 대학의 학과에 합격하며 심리적 여유가 생겼고, 그에 따라 조금 더 넓은 세상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살이와 사회 흐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저에게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이 그런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프로그램의 유익한 점과 특별한 점]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의 가장 유익한 점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학업이나 과제 등 당장 본인에게 닥친 일들을 우선으로 처리하며 몰두하다보면, 생각보다 쉽게 세상살이에 관심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모전의 주제가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기 중 잠시 관심을 두지 못했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시 되짚어볼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1학과 2학기 모두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다음은 제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거친 단계들입니다.

- i.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사회적 사건들을 되돌아본다.
- ii. 각 사건들의 최근 뉴스를 찾아보며 근황과 결과 등을 알아본다.
- iii. 관심 분야인 사건이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주제로 택한다.
- iv. 사건 내용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진행한다.
- v. 본인의 생각을 간략히 정리하고 의견을 정립한 후 글을 작성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한 학기 동안의 사회적 이슈를 되짚어보며 놓치고 있던 사회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 표현 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과 이를 글로 쓰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동시에 글을 쓰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의 효과적 부분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추천 주제로 제시되어 있지만 기타를 선택해 자유 주제로 글을 작성해

도 됩니다. 때로는 글쓰기 주제를 정하는 것이 글쓰기의 가장 큰 고비가 되기도 하는데, 추천 주제와 자유 주제를 모두 제공해주며 이런 난관을 없애준 것입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이 특징도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의 특별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이 좋아도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두 재학생이기에,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의 현실적인 장점은 제출 기한이 종강 이후라는 점입니다. 기말고사 주간과 공모전 제출 마감일이 겹치지 않아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한 후, 기한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깊은 생각을 하며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쓰는 만큼 주제가 가볍지 않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 장점으로 2연속 수상자는 다음 학기에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모전 참여해봤자 나는 수상자에 포함된 적이 없다는 걱정이 앞서는 학생들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참가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2연속 수상자의 경우 한 학기가 지나면 다시 장학금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수상했던 학생들도 다시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금 균등 분배 규정이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주제 선정의 편함, 제출 마감일의 넉넉함, 그리고 장학금 균등 분배 규정 등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동안 비교과 프로그램을 부담스럽다고 여겼다면 꼭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에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복합적인 능력치들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공모전에 참여하고 이러한 장점들을 모두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3. 느낀 점]

저는 1학기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유튜버가 공개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돌아본 우리나라 법'을 주제로 정했고, 2학기에는 서이초 교사 사건과 저출산 등 어린이와 관련된 이슈가 많아 '우리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해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하며 이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이슈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느껴져 기뻛고, 동시에 긴 글을 쓰고 다듬는 것도 오랜만이라 즐거웠습니다. 1학기에 수상자로 선정된 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뜻깊은 공모전을 꾸준히 열어주시는 스미스학부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CTL 서포터즈는 한번 해봐야죠!!!

약학과 심연경

<프로그램 소개, 참여 동기, 추천 이유>

CTL 서포터즈는 교육혁신원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직접 참여도 해보고 또 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는 활동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21년 2학기에 CTL 서포터즈를 해본 경험이 있었으나, 그때에는 코로나가 심각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활동을 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한 학기 동안 회의를 자주 하고, 팀 활동도 자주 하는데 모두 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소통에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마지막 학기인 23년 2학기에 그 아쉬움을 없애고 또 그 누구보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CTL 서포터즈에 지원하였고, 선정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특 알람을 꺼놓고 있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잘 접속하지 않아 비교과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약학과 동기들 역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지는 있으나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 잘 모르고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동시에 나 역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알게 되어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엔 사실 실습을 나가거나 외부 강의를 듣는 기간이 길어 학교 행사에 관심을 두기 어려웠는데, 서포터즈 활동을 함으로써 학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알 수 있어서 특히 좋았다.

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장점으로 타 학과 학생과의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약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으로, 교양수업은 듣지 않고 전공 수업만 듣기 때문에 타 학과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아예 없었다. 하지만, 타 학과 학우들은 어떠한 학교생활을 하는지 궁금했고, 또 나와는 다른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기에 만나서 교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곤 하였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21년 2학기에는 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심리학과 학우와 친해져 같이 공모전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이번 학기에는 타 학과 학생들과 더 친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해 특히 기대가 많이 되었다.

이번 학기에 실제로 활동하면서 일본어학과 학우와 경영학과 학우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서포터즈 활동 외에도 같이 식사하거나 귀가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학교 정보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들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다

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 약학과 학생도 수강하게 되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또한 소소한 학교 정보도 공유해 주어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2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학습 진단 검사를 해서 학습법 상담을 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이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서포터즈 활동은 프로그램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도 권장되는데, 이 학습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 역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평소 학점에는 크게 불만이 없었지만, 갈수록 공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또 암기하는 것 자체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와중이라 이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상담사분께서 내 학습 방법에 대한 허점을 짚어주시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제안해 주셨는데 그 방법으로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유익하긴 했지만, 서포터즈 팀원들과 프로그램에 대해 같이 후기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특히 더 유익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도 함께 공유하고 각자 배운 점들을 공유하곤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에 참여해 끝내는 것보다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네컷만화를 같이 그려서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포스터를 붙이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 활동 또한 매우 재미있었다. 약학과 수업이 진행되는 제3과학관 외에는 학교에 다른 곳을 가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그냥 지나치던 게시판들도 알게 되었고, 경영학과나 일본어학과는 어디 있는지, 또 학교 곳곳에 정보를 알 수 있는 게시판이 어디 있는지 등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활동을 하며 서포터즈 팀원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학교의 맛집 정보와 같은 소소한 정보부터 요즘 각 학과의 이슈는 무엇인지 등의 중요한 정보들까지 교류할 수 있어서 특히 좋았다.

<활동 소감>

서포터즈라고 하면, 하는 일이 대단히 많을 것 같아 부담감을 느끼는 학우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 역시도 처음 서포터즈를 신청할 때, 내가 아르바이트 및 학업과 병행하며 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활동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의문을 가지고 신청했었다. 하지만 학업의 양이 방대한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었고, 다른 팀원들 역시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래서 바쁜 학우들도 서포터즈 활동을 한 번 고려해 보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고 한 학기 동안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특히 더 추천한다.

나는 아직 졸업은 하지 않지만, 실습을 나가기에 학교에서의 생활은 올해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학교생활에 대해 아쉬운 점도 있고 보람이 있던 점도 많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학교생활을 한 것 같아 만족스럽고, 이 활동을 신청한 것에 대해 후회가 없다. 학교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학우들은 다른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도 얻고, 마지막 학교생활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주체적 사고를 위한 창과 방패

환경디자인원예학과 김성주

[프로그램 참여동기 및 소개]

최근 엽기,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대중의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 대중매체에서 각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지 못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수투릿토론파이터'에서 사형제도를 주제로 토론대회가 개최됨을 알게되었고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근거를 조사하며 지금의 사회문제와 해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특성, 유익한 점]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해당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 반박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만의 의견을 주장하는 싸움이 아닌,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지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화합의 장이라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과정 중 가장 큰 위험성은 '알고리즘의 늪'에 빠지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극단적 사고로 이어진다. 혐오와 갈등, 분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치, 남녀, 시민사회 등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 발자국만 떨어져 생각해 보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다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지만 알고리즘은 그런 기능을 못하게 만든다. 이 활동을 통해 주제에 대한 다방면적 분석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입론서를 작성하며 조원들과 불 튀기며 싸웠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서로의 주장과 근거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였다. 한 팀원은 사형집행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 해소와 응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나는 법 철학적 관점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사여부에 대한 가치판단과 억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사형제도와 사형집행, 사형선고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 정의 내리는 것이었다. 제도는 선고를 할 수 있음과 집행할 수 있음을, 집행은 사형의 실행을, 선고는 사회적 비난과 법적 처벌을 의미함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글과 말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이번 주제에 대해 준비하며 한 분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법적인 영역에서는 사회 시스템이 국민의 목숨에 대한 가치판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 복지적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제도와 강력범죄자들의 사회 재통합, 범죄 역지의 관계를 알아보며 강력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빈부격차임을 알게되었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사형집행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비용과 사형수의 구금에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보았다.

['수투릿토론파이터'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주체적 사고를 하기 위한 창과 방패를 얻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늘 새로운 사고체계를 선택해 왔다. 근대에는 절대자의 말을 따르고, 종교재판도 마다하지 않았다. 데카르트의 이성주의가 도입된 이후엔 인간이 세상엔 참인 어떠한 짜여진 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뉴턴의 양자역학은 오랜 시간 '법칙'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뉴턴역학의 법칙은 '착각'과 '오해'가 되었다. 이렇듯 인간의 사유는 변화해 나간다. 현명한 현대시민이 되기 위해 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주체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진위를 판별할 줄 알며 보다는 인간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자신의 주장도 되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키워주는 이 토론의 장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모든 대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할 특강, “스피치 마스터 특강”

약학과 강호정

“나는 말이 빠르다, 말이 두서없다, 전달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제 곧 취업해야하는데 면접이 걱정된다.” 한번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본 고민일 것이다. 같은 말이더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전달해주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며, 특히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면접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나 역시도 “말”에 대해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평소에 친구들과, 교수님들과, 가족들과 대화를 나눈 뒤, 집에 가서 어떤 말은 잘 했는지, 어떤 부분은 미흡했는지에 대해 스스로 피드백을 자주 한다. 그러나 피드백은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것이다. 게다가 말로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하는 직업인 약사를 희망하는 나로서는 나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했다. 다행히 교육혁신원에서 “오늘부터 스피치 마스터” 특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였다.

특강 진행하신 이은혜 선생님께서는 밝은 목소리와 넘치는 긍정 에너지로 우리를 맞이하였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왜 특강을 신청했는지 따스하게 물어보셨고, 그런 가벼운 대화로 경직된 분위기를 푸신 후 특강을 진행하셨다. 낮을 가리는 편이지만 선생님 덕분에 긴장이 풀린 상태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1회차 수업에서는 스피치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스피치의 3가지 핵심은 호흡, 발성, 발음이다. 호흡을 길게 하며 말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복식호흡이 권고된다. 또한 발성은 입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데, 한국인은 한국어 발음의 특성상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 따라서 또렷하게 나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리면 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강의에서 알려주셨다. 또한 발음의 경우도 평소에 많이 연습해야함을 강조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모든 학생들의 발음과 발성을 들어주시며 보완점을 확인해주셨다. 이 강의를 들은 후 나는 특히 발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많이 연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2회차 강의 때에는 면접 및 발표에 좀 더 초점에 맞춘 강의를 진행되었다. 발표의 핵심은 기획, 작성, 전달 3가지이다. 기획 단계에서는 분석 및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작성 단계에서는 PPT 제작과 더불어 대본 작성, 그리고 전달 단계에서는 리허설을 해봐야 한다. 특히 분석 단계에서는 3P, 즉 purpose(의도), people(청중), place(공간)을 나누어서 분석해야한다. 또한 면접에서 대답을 할 때는 PREP 화법, 즉 Point(핵심 메시지), Reason(핵심 메시지에 대한 이유), Example(예시), Point(핵심 주장)을 사용하

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 면접을 대하는 자세와 말을 강조하는 방법, 면접 시 떨릴 때의 대처법, 마무리 문장 만드는 방법, 비언어적 요소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기법들을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셨다.

이 강의를 들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발표를 할 때에도 그저 교수님이 과제로 시키시니까 했고, 면접을 보러 갈 때에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만 갔다. 즉, 사전 준비가 미흡했고, 이 때문에 항상 발표이든 면접이든 아쉬운 결과를 받았으며, 그 때문에 부족한 나 자신을 자책하는 등, 끝없는 굴레 속에서 괴로워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못나서 못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못한 것이다. 4시간의 짧지만 알찼던 특강에서 들은 내용들을 직접 연습하고 체화하면 웬만한 발표와 면접은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더 나아가 미래에 약사로서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21세기는 “언어”가 무척 중요한 시대이다. 말 한마디에 큰 금액의 돈이 좌우되며, 말 한마디에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등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 만큼 무척 예민하고 진중히 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방법을 알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유롭게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모든 젊은이들, 특히 면접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한다. 많은 학생들이 스피치 특강을 통해 면접과 발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본인들이 꿈꾸는 멋진 인생을 향해 정진하길 바란다.

우울하세요? 함께 뛰어봐요! “RUN TO THE BONE”

물리치료학과 고지연

“하프 마라톤 20대 여자 부문 수상이 있겠습니다. 대망의 1위 고! 지! 연!”

미리 보는 결론처럼 서두에 내 인생을 충전 해주는 중요한 한 문장을 적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듯, 우울의 감정 역시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역시, 인생의 암흑기가 언제나 고 물어보았을 때 생각 드는 그 우울한 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 본다.

우울의 암흑은 꽤 유혹적이어서 행복했던 모든 찰나를 잊은 채 암흑 속에 빠트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마라톤 완주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았던 때가 인생의 암흑기에 폭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였을 때였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의 등쌀에 못 이겨 나갔던 5년 전 춘천 마라톤이 생각났다. 준비 없이 나간 10km 마라톤 완주 후 장장 10일은 앓았던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다시 나갈 엄두도, 체력도 없었던 마라톤이었지만 고통의 마라톤이 눈에 들어올 만큼이나 바쁘게, 힘들게 뭐라도 해보면 우울함과 무력감이 조금은 없어질까 싶었던 때였다.

그렇게 무턱대고 서울 라이프 마라톤 half 코스를 신청하였고, 1년 전 크루원으로 활동했던 연합 러닝 크루를 떠올리며 학과 내 러닝 크루를 만들었다.

“Run to the bone(born)”으로 물리치료학과 학생답게 ‘뺨속까지 뛰어가자’라는 의미와 ‘태어난 곳까지 뛰어가기’의 중의적 의미를 담아 작명한 러닝 크루였다.

물리치료학과 특성상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 많았고, 더불어 국가고시를 앞둔 선배님들은 체력 유지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다.

러닝을 평소에 해왔던 학생들과 처음 뛰어보는 학생, 다이어트를 위해 들어온 학생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하였다.

처음 1개의 조로 운영을 하였지만 규모가 점차 성장하면서 각자의 실력이 모두 달라, 총 씨앗·새싹·러너 조 3개로 나눠 운영하게 되었다. 매주 1주에 1번씩 모여 뛰었고, 휴일에는 한강에서 뛰거나 임상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함께 뛰고 이 후 진로 탐색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학생들이 러닝에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마라톤 때문에 시작한 러닝 크루였지만 열정 넘치는 부팀장과 크루원 덕에 더 열의를 가지고 이런 저런 활동을 만들어 활동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 7"32" (1km를 7분 32초에 뛸 속도) 3km로 시작한 러닝이 점차 5km, 8km로 늘었고, 마라톤 일주일 전 최종 훈련 때는 15km를 5" 50"로 완주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런투더 본” 인원 중 팀장이었던 나를 비롯하여 부팀장, 크루원 총 3명과 함께 마라톤을 나가게 되었는데 창동부터 성수까지 중랑천 따라 뛰는 15km 직전 훈련 때는 무리가 되었는지, 3일간 몸이 붓고 절뚝 일 만큼 꽤 혹독한 훈련이었다.

훈련 후 남은 1주일에는 5km 미만 러닝과 카보로딩(3일 단백질 집중 식단 후 3일 탄수화물 집중 식단을 통해 체내 다량의 글리코겐 축적을 가져오는 마라톤 맞춤 식단 법),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며 하루하루 가까워져 오는 마라톤을 준비하였다.

그동안 하고 싶지만 못 해왔던 학교생활들과 다양한 장소로의 여행, 그리고 ‘러닝’에 폭 빠진 3달을 보냈고 마라톤을 며칠 앞둔 이맘때쯤 문득 “마음 가득하게 행복한 감정이 나를 가득 메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힘든 감정이 들 때 운동을 하라는 주변인들의 말에 따라 시작한 운동이었고, 힘들 그때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극복하고 행복한 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

마라톤 하루 전, 극복의 수단이었던 러닝이 현재 삶의 목표가 되었음을 느끼며 마라톤을 준비하게 만들어 준 비교과 프로그램에 큰 감사를 느꼈다.

마라톤 당일, 긴장감 탓인지 새벽에 잠을 설치며 6:00에 출발하였다. 학과에서 배운 스포츠 테이핑으로 온 몸을 칭칭 감고 출발 지점인 상암 평화의 광장에 도착하였다. 함께 온 팀원들과 함께 몸을 풀고 서로 응원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3, 2, 1 빼익—”

8시 30분 하프 코스의 시작을 알리는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모두의 응원 속에 출발하였고 연습 때처럼 5" 50" 페이스 유지를 목표로 달리기 시작했다.

함께한 많은 사람들의 열기와 응원 덕인지 목표보다 빠른 5" 10" 페이스로 뛰게 되었고, 이 속도 유지가 가능할지 걱정하며 계속해서 나아갔다. 다행히 5km 반환 지점까지 5" 3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신기하게 숨이 차지 않는 나를 보며 응원과 함께하는 가치를 새겨왔다.

그렇게 11km 반환 지점을 넘어섰고, 페이스를 보지 않아도 같은 속도로 다리가 움직이는 거리가 되었다.

흔히 “러너스 하이”라고 한다. 일정 고심 박수를 유지하여 러닝할 때 마치 구름을 걷는 듯한 행복감을 주는 현상을 부르는 말이다. 이 말을 몸소 체감하며 다시 16km를 반환하였고, 19km 지점에서 고비가 찾아왔다. 오른쪽 맹장 쪽이 찢어질 듯 아파져 왔고, 배를 움켜쥐어도, 숨을 최대한 참아봐도 통증은 지속되었다.

하프가 20km인 줄 알았던 그때 “1km만 참자.”라는 생각으로 알아서 달려주는 하체를 믿고 상체 고통을 견뎠다. 1km가 지났음에도 보이지 않는 결승선에 통증을 못 참고 다리를 멈춰 세워 걸을 수 밖에 없었다. 7초 정도 걸으며 찰나의 천국을 경험하곤 나약해진 정신을 부여잡고 다시 출발하였다.

다행히 잠깐의 휴식이 준 회복력은 성공적이었다. 회복에 탄력을 얻어, 마지막 마무리 지점까지 좋은 페이스로 들어올 수 있었다.

완주 후의 그 쾌감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희열이었다. 그 기쁨과 감동을 몸 안팎으로 가득 안고 기념품 수령을 위해 줄을 서서, 무대에서 진행되는 시상식을 보고 있었다. Half 마라톤 남자 부문 시상식을 보며 “아 우리 대학생 10등은 한 거 같지 않아?”라며 장난스럽게 넘기던 중 여자 부문 시상자를 호명하

였고, 20대 여자 1등에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20대 여자 10등 안에 들기가 목표였던 나는 믿지 못한 채 빙뚱 채 000 이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재차 호명되는 내 이름에 “저..저요 저?? 나요?? 난데?? 저거 나야??” 하며 아픈 줄도 모르고 달려 나갔다.

자랑스럽게 내 이름이 호명되는 시상식에서 감격스러움과 감동이 물려왔다. 불가능 할 것 같던 완주와 기적적인 입상, 이와 같은 기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마라톤 용어 중 “사점(dead point)” 이라는 말이 있다. 뛰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죽을 것 같이 힘든 지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지점을 넘어서고 나면 직전에 언급한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곤 한다. 사회 문턱에 이제야 막 발을 들인 지금 나에게 찾아온 사점에서 러닝이라는 좋은 수단으로 극복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우울감에서의 극복을 넘어 행복과 희망을 안겨준 마라톤은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될 것 같다.

전문 마라토너에게도 사점은 매 러닝마다 찾아온다. 하지만 트레이닝이 충분히 된 마라토너들에게는 사점의 타격감이 크지 않다. 나 역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힘든 일은 반복적으로 찾아오겠지만 큰 타격감 없이 삶을 헤쳐나갈 용기와 방법을 이 마라톤에서 배웠다. 앞으로 고난에서 빠져나올 때 주문처럼 머리에 되새길 말, 잊지 않고 되새기려 한다.

**"하프 마라톤 20대 여자 부문 수상이 있겠습니다.
대망의 1위 고! 지! 연!"**

그렇게 공간속으로.....

일본어과 안지민

모든 생명을 품는 숲과 모든 사람을 품는 책에 기대어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 받는다.

중간고사와 주말 아르바이트로 바빴던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고 싶을때 쉼표 하나 되어 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매일의 속도를 따라 가느라 지치고 버거웠을 때 '도서관 포토에세이' 공모전이 눈에 들어왔다. 공모내용은 도서관에서 보내는 나의 하루 또는 도서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서동도협' 11개 회원교가 참여하는 공모전이라 먼저 교내대회를 거쳐야 했다. 감성이 담긴 사진을 찍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지 않았지만 참여를 안하면 후회가 더 클 것 같았다.

사진과 글을 조합하여 주제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먼저 느낌과 감성이 담긴 공간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의미를 두고 도서관을 보기 시작하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중앙도서관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붉은 벽돌이 주는 빈티지한 느낌이 좋았고, 또 어떤 날은 수령을 가늠할 수 없는 운치있게 휘어져 자란 소나무와 멀리 보이는 산과 숲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새소리가 청아하게 울리는 도서관앞 그네에 앉아 등 뒤로 비추는 햇볕을 조명삼아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다 만난 한 문장은 조각났던 어제의 마음을 꿰매 주었다. 중앙도서관을 품은 푸른 숲에 안겨 문장에 감동 받는 하루는 쉼을 넘어 위로가 되었다.

어디 그뿐이라! 독특한 2.5층에 앉으면 통유리창 그대로 들어오는 자연이 산 속의 정취를 오롯이 느끼게 해 주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두문즉시심산'- 문을 닫아 걸면 이 곳이 깊은 산중이다- 최순우 선생의 가옥에서 보았던 글귀가 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렇듯 도서관과 그 주변은 어떤것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은 채 모든것이 고요하게 어우러져 순간이 되었다.

사진은 어느정도 찍었으니 그에 어울리는 글을 써야했다. 사진 속에 담아 낸 공간에 대한 묘사는 글로 표현했을 때 더 마음을 움직인다. 그 이유는 사진은 모습을 보여주고 글은 그것을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감을 열어 사진 속에 정지된 순간의 느낌과 감정을 글의 힘을 빌어 하나씩 움직여 보았다. 서툴지만 보는 이가 '눈' 이 아닌 '마음' 으로 볼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다.

사진속에 잔뜩 웅크리고 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써 내려가며 잔잔한 추억의 향기가 나를 또 한 번 위로해 주었다.

공모전이 '포토에세이' 인 만큼 많은 사진 아니, 느낌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 한 동안 하루에도 몇 번 씩 도

서관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 했다. 앞으로 살면서 도서관 내부, 혹은 외부로 이렇게 사진찍을 날이 또 올까? 싶다.

생각한 컨셉 중 서가에서 본인이 책 읽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는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 얼른 찍어야 했다. 숲을 품은 도서관 풍경은 비교적 붐비지 않는 1교시 전에 학교에 도착했으나 아뿔싸! 산이 사라졌다. 비가 온 다음 날 아침이라 산이 안개에 가려 다음 날 다시 찍어야 했다. 맑은 날에는 멋진 소나무를 배경으로 찍으려 했는데 며칠 간 바로 그 소나무 앞에서 동아리 부스 체험이 열리기도 했다.

사진 작가들이 한 컷을 찍기 위해 어떤 기다림과 실패작들을 거쳐야 했을지 감히 그 과정을 짐작해 보니 모든 사진이 다 의미있게 다가왔다.

그동안 나름대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지만 '포토에세이' 공모전은 처음 경험해 본다. 감각을 동원해 감응을 이끌어 내는 사진을 찍고 감성을 풀어 넣어 글로써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이미지로 사진을 찍고 어떤 느낌의 글을 써야할지 행동으로 옮기려니 자신이 없었다.

먼저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작은 것, 사소한 것 부터 천천히 느끼며 보기 시작했다. 계절이 주는 색과 향기 그리고 온도, 오래된 건물이 주는 편안함, 책에서 들리는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작가의 소리... 등 모든것이 사진과 글이 되어 주었다. 처음에는 무조건 사진만 많이 찍으면 될 줄 알았는데 사진은 기록만 할 뿐 순간을 제대로 기억하려면 모든 감각을 열고 느껴야 했다. 또한 글 쓰는 과정을 통해 사진에 담지 못한 감각을 표현해 내는 것도 중요했다. 사진으로 표현하기 부족한 무언가를 에세이를 통해 표현하면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토에세이는 시각적 예술과 문학의 조합이라고 말한다. 거창하게 '예술과 문학' 이라는 단어 때문에 진심이 빠진 사진과 화려한 미사여구의 글을 쓰려고만 한다면 그저 '눈요기' 거리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포토에세이를 만드는데 룰이나 정답은 없다.

사람들 사이로 그리고 사물과 사물의 틈사이로 그렇게 공간속으로 들어가 나만의 '뷰 포인트' 를 찾아 느낌과 의미에 진심을 더하면 프레임 속 사진은 빛나는 이야기를 품게된다.

누구에게나 숨 한번 고르고 쉬어가는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멈춰 있기보다 현재의 환경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을 찾고 싶었다. 그렇게 만난 '도서관 포토에세이' 공모전은 일상의 가장 단순한 것들을 변화 시키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결국, 잠시 멈춤이 아닌 나만의 속도에 맞추어 나는 그렇게 또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심포가 필요한 이유

사회복지학과 이지민

[사계절을 가득 담은 HOPE 캠핑장]

HOPE CAMP는 글로벌사회혁신원 리더십센터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특성상 1박 2일 숙박을 해야 하기에 COVID-19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홍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주변 학우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2023년 HOPE CAMP는 이전과 다르게 주차별 테마를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이전에는 참여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고 모든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동일하였다. 올해는 참여 대상부터 프로그램 내용까지 테마별로 상이하게 구성하여 삼육대학교 학우들이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여러 비교과프로그램 가운데 짧은 시간 동안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가장 큰 의미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호프캠프는 사계절이 갖고 있는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이 점이 다른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비교하였을 때 삼육대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자 HOPE CAMP가 자랑할 수 있는 차별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프로그램은 교내 기숙사인 에덴관과 제명호 입구 사이에 위치해 있는 HOPE 캠핑장에서 진행된다. 봄에는 '서울 4대 캠퍼스 봄꽃 명소'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진달래와 벚꽃이 물든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여름에는 울창한 소나무길을 따라가다 보면 캠핑장을 만날 수 있다. 가을에는 캠핑장에 앉아 선선한 바람을 자으며 오색빛 노을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겨울에는 눈이 가득 쌓인 숲속의 풍경과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일상의 작은 휴식]

2년째 HOPE CAMP에 참여하였지만 리뉴얼된 올해의 호프캠프는 올해 참여한 프로그램 가운데 나에게 가장 유의미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내가 참여한 주차는 동아리나 학과, 안교 등 공동체(단체)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에 글로벌사회혁신원 리더십센터 주관 프로그램인 삼육마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팀원들과 신청하여 본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HOPE CAMP와 삼육마을 프로젝트가 같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에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 HOPE CAMP를 통해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들어 누군가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2023년은 COVID-19 이후 처음으로 1년 동안 온전한 대면수업과 학교생활을 하게 된 한 해였다. 한 해를 돌아보니 다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왔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인한 랜선만남에 익숙해 있고 있던 사람들과의 온기와 주고받는 에너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이든 희망할 수 있는 시간]

흔히들 캠핑은 편안한 집을 뒤로하고 야외에서 활동해야 하는 부지런한 몸과 불편한 잠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HOPE CAMP는 교육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명 그대로 캠프이기에 식사부터 교육과 교제, 취침까지 모든 일정들이 야외에서 이루어진다. 편안함이 익숙한 현대 사회에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정들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부지런한 몸과 넉넉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공기를 마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더 큰 힘을 얻는다. HOPE CAMP 모든 일정 가운데 캠프파이어를 하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인상깊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다양한 시선들을 배울 수 있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모닥불 앞에 나눈 이야기들은 앞으로 나의 삶에 오래도록 기억 남을 것이다.

전공적으로, 지식적으로 역량을 쌓아가는 프로그램도 의미하지만 바쁜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활동과 대학생활 가운데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HOPE CAMP를 추천하고 싶다.

최고의 프로그램 콩콩마켓

경영학과 정재운

나는 평소에 요리를 하고 제과제빵을 하는 데에 취미가 있다. 중학생때부터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각종 방송프로그램과 동영상을 통해 요리와 제과제빵에 대해 더욱 깊게 알 수 있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나의 개인 SNS계정을 통해 내가 직접 만든 요리들을 올리기도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나와 비슷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도 나의 SNS계정을 소개해주면서 이에 대해 재밌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재가 하나 생기게 되어서 뜻깊었다. 때로는 내가 직접 만든 요리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대접하기도 하며 칭찬과 피드백을 들곤 했는데 이 부분에서 나는 여러가지 감정이 들었다. 예전에도 요식업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요식업 분야에서 나의 미래를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요리를 대접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지만 장소, 시간 등 여러가지 상황이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이를 보완해주는 제과제빵을 통해 만든 빵, 과자등을 나눠주는 것은 매우 간편한 편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다. 나는 올해 2월부터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했는데 본가에는 있는 오븐, 에어프라이어 등의 기구가 자취방에는 없다는 점이다. 본가에서는 자주 만들었던 빵, 쿠키등을 자취방에서는 만들기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 SNS상에서 유행했던 개성주약에 대해 알게 되었다. 개성주약은 고려시대 때 즐겨먹던 후식이라고 해서 만들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간단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굽는 방식이 아닌 기름에 튀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튀김용 냄비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개성주약을 만들어서 교내에서 같이 근로를 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지인들 대부분이 맛있다고 해주어서 기분이 매우 좋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던 중 나와 평소 친했던 한 명이 개성주약을 콩콩마켓에서 팔아보는건 어떨까라는 말을 해주었다. 혹시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자신이 도와 주겠다는 말도 해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학기 같은 수업을 들었던 지인 중 지난 학기 콩콩마켓에 참가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직접 콩콩마켓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장사를 해 본 경험도 없고 대학교 생활 중 내가 직접 만든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를 한다는 것이 약간 두렵게 다가오기도 했다.

이렇게 콩콩마켓 참여 여부에 대해 고민하던 중 콩콩마켓 프로그램에 다수 참여해 본 경험있는 지인이 '개성주약'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것 같이라며 같이 해 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내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마켓 운영 경험에 대한 것이었는데 경험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기에 참여를 확정했다. 이 지인은 제과제빵 경험이 많은 편이어서 나와 함께 개성주약 제조를 맡았고 여기에 더해 마케팅 분야에 강점이 있는 지인 한 명과 서비스직 경험이 풍부하고 회계에 능한 지인 한 명이 더해져 총 4명이 콩콩마켓에 참여했다.

콩콩마켓 준비 과정 중 개성주악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바로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200개 내외로 판매할 생각이었는데 콩콩마켓을 여러 번 경험해 본 지인이 지난 학기 콩콩마켓에서 쿠키를 500개 정도 판매했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판매 갯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갯수들은 주변에 나눠주거나 폐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3일 간의 사전예약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였고 이를 토대로 총 800개 정도의 개성주악을 판매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총 800개의 개성주악을 제조했다. 너무 감사하게도 사전예약 수량으로 약 400개 정도의 개성주악이 판매되었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둘째날에는 첫째날 마켓 마감 후 300개 정도의 개성주악을 추가로 제조해서 둘째날 판매하기도 했다.

콩콩마켓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 물론 나도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기에 내가 취미로 하고 있는 요리 이외에도 마케팅 분야, 회계 분야 등에도 어느정도의 처리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두가지 분야에 나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메뉴판, 공지문 등의 홍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케팅 분야에 강점이 있는 지인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만드는 것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통해 우리 팀의 홍보물이 매우 높은 퀄리티로 나올 수 있었다. 또한 나머지 3명은 서비스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지인이 부스에서 직접 손님들을 대하는 것을 보며 배울 점이 매우 많다는 생각도 들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했으나 직접 운영해보니 더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전문 매장이 아니다보니 화과자케이스에 담긴 개성주악들을 봉투에 담아주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오리지널 메뉴는 괜찮았지만 각종 토핑이 올라가는 메뉴들은 더욱 신경써서 봉투에 넣어주어야 했기에 이를 담는 과정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부스 판매 시작 직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정신이 매우 없었던 기억이 있다. 당일날 아침 일찍 와서 많은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느꼈다. 첫 날 부터 많은 성원을 받아서 부스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당일 준비한 수량을 모두 판매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다음 날 더 많은 분들에게 개성주악을 선보여드리기 위해 제조를 담당하는 두 명은 급하게 제조에 투입되기도 했다.

부스 판매를 하면서 처음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느낀 부분도 있었다. 우리가 제조했던 개성주악들 중 모양이 다소 예쁘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모아서 가위로 달라 시식을 진행했고 이 부분이 더욱 많은 갯수를 판매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인이 왔을 때는 몇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변에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도 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손님을 맞을 수 있었다. 또한 개성주악과 같이 판매했던 호박식혜는 다소 잘 팔리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둘째날에는 개성주악과 호박식혜 세트메뉴를 만들어 판매하였더니 첫 날 부진했던 호박식혜 판매량을 만회할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도 물론 있다. 우선 가장 큰 아쉬움은 더 많은 양을 준비하지 않아서 더 많은 양을 판매하지 못했던 점이었다. 첫째날에는 사전예약을 제외하고도 약 500개의 수량을 3시간만에 모두 판매하였고

둘째날에는 급하게 추가로 제조한 300개 정도의 수량 2시간 30분만에 판매하였다. 물론 남은 시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갯수를 판매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을 더 미리 예측했다면 더 큰 성과를 일구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쉬움이 들었다. 또한 이틀간의 짧은 판매기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준비기간도 길지 않고 제조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 부분도 우리 팀 만의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러한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콩콩마켓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고민하는 학우들이 있다면 일단 시도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특히나 향후 진로를 창업 관련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좋고 시도하기 쉬운 분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콩콩마켓에 참여하며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경험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식당,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비법, 해결책 등을 예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우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를 직접 경험해 본다면 그것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 이유로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내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나는 확실히 요리에 취미를 가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개성주악을 제조하는데 있어 꽤나 능숙하다는 강점이 있었다. 하지만 요리를 제대로 배운 경험은 없기 때문에 반죽 농도조절, 기름 온도조절 등의 부분에서는 약간의 약점이 드러났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콩콩마켓을 진행하는데 있어 큰 차이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향후 창업을 하고 음식을 판매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작은 약점이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추가적으로 나는 서비스직과 관련된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꽤나 강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콩콩마켓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느정도 안정성이 보장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교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어느정도 수요가 보장이 되어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꽤나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은 콩콩마켓에 참여할 만한 명분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첫걸음, 나를 정리하기

아트앤디자인학과 박근영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사실상 대학교에서 마지막 방학을 보내게 된 나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직무체험 취업동아리 프로그램의 디자인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동아리에 지원하게 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학과별 향후 진로에 맞추어 각기 다른 주제를 갖고 개설되며 각각 전문성을 갖춘 멘토와 함께 매월 멘토링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나는 4학년 1학기에 과제물들을 얼기설기 엮어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지만 스스로 많이 미숙하다고 느껴 포트폴리오 만들기 동아리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얻고 내 포트폴리오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내가 참여한 동아리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이너 겸 컨설턴트, 마이크로소프트 MVP와 유피티 연구소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유피티 멘토님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활동 시작 전, 멘토님이 많은 강연과 작업을 해오셨음에 언어갈 것이 많다는 기대와 거리가 먼 지역에 살고 계셔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소통이 잘 될지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들었다. 포트폴리오 제작에 있어 전문지식을 가진 멘토가 훌륭하더라도 제작자인 멘티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도 잠시 멘토님께서 비대면 활동임에도 친절하고 세부적인 강의와 자유로운 질의응답,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적극성과 피드백으로 학생들과 소통하여 참여를 이끄셨고 대면 수업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그에 앞서는 수업을 만들어주셨다.

“포트폴리오를 보는 인사 담당자의 입장으로 보면 달라요.”

멘토링 활동 첫날, 멘토님이 해준 말에서 보여주고 싶은 나와 남이 보고 싶은 나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대학에서 작업한 것들을 전부 보여주고 싶어 과하고 미숙하게 제작하였던 내 첫 포트폴리오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제작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멘토님은 포트폴리오를 처음 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 포트폴리오의 필요성과 전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해주셨으며 잘 정리된 강의 자료와 포트폴리오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회사가 원하는 디자이너로 보이도록 개인의 경험을 적절하게 녹여내어야 하는 작업인 만큼 멘토님이 학생들의 제각기 다른 경험을 친절하게 한 명 한 명 들어준 뒤 경험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주셔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었다.

첫 멘토링을 마치고 각자 포트폴리오 초안을 제출하는 과제를 받게 되었는데 과제를 제출한 뒤 멘토님의 진가를 알 수 있었다. 슬라이드로 나누어 PDF 파일로 제작된 초안을 확대하여 캡처한 이미지들과 함께 항목별로 정리된 매우 상세한 장문의 피드백이 왔기 때문이다. 이후 멘토님의 피드백을 그대로 따라가

며 색, 이미지, 자간 및 행간, 텍스트의 위치 및 내용을 조절하고 쳐낼 것들과 더할 것들을 작업하고 나니 포트폴리오가 전보다 훨씬 말끔하게 정리되어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제 제출과 멘토링 활동은 당시 학업과 병행하고 있어 일정이 빠듯했기에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조율해 진행되었다.

동아리 활동은 멘토님 없이 동아리원들의 포트폴리오를 서로 발표하고 피드백해주며 작업 시 어려웠던 점을 공유해 돕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회화와 디자인, 환경 조경 등 각자의 진로가 다른 만큼 발표 이후 대화를 통해 다른 분야의 진로 분야와 해당 학생의 계획을 알 수 있었다. 각자의 작업 중인 포트폴리오와 졸업 작품들을 보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동시에 스스로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만남임에도 결끄러움 없이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어려운 점을 공유했을 때 동아리원들끼리 격려해주며 사이트나 프로그램 사용 방법 등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활동 이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고 적은 인원이었기에 원활하게 모두가 소통할 수 있어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멘토님은 감사하게도 멘토링 활동 외 시간에도 항상 작업 현황을 제출받는 즉시 장문의 친절한 피드백을 주셨고 나를 비롯한 동아리원들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제작해나갈 수 있었다. 멘토링 활동에서는 구성 목차, 목차별 내용 및 작성 방법 강의, 표지와 이력서, 목차, 작품 전개 및 가치관 등의 내용을 꾸준히 인사 담당자의 입장으로 강의해 주셨기에 시야를 넓히고 객관적으로 내 작품을 바라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이력서 사진과 같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팁을 말씀해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멘토님이 5월 27일 대면 활동을 기획하셨다. 당일에는 먼 곳에서 서울역으로 올라오는 멘토님을 위해 서울역 주변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활동 전 가장 일찍 도착한 나는 똑같이 일찍 도착한 멘토님이 지금의 직업 선택 이유 및 겪으셨던 시행착오 등을 들으며 20분 정도 대화했다. 화면 속에서만 뵈던 멘토님이었지만 멘토링 활동에서처럼 인간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 동아리원들이 모두 도착한 뒤엔 각자 현재까지 완성한 포트폴리오를 발표 후 여태까지 피드백 중 가장 구체적이고 와닿는 피드백과 함께 피드백에 대한 멘토님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동아리원들에 대한 진로 상담까지 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쉬웠던 점은 멘토링 활동 이후 식사를 위해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기차 시간이 빠듯했던 멘토님은 음식을 구경하지도 못하고 가시게 되었다.

취업 시장에서 다른 무엇보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준비하며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의 작업물을 바라봐 줄 수 있는 현업 업무종사자의 피드백은 정말 귀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당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강연과 컨설팅, 디자인 작업을 주도한 멘토님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점점 다듬어지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멘토링 활동에서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지식과 흐름을 강연해주신 덕분에 포트폴리오의 기반을 다졌으며 개별 맞춤 피드백 덕에 허투루

시간을 쓰는 일 없이 다른 포트폴리오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 작업할 수 있었다. 피드백은 주로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해되고 정리되어 보일지에 관한 내용이었기에 반복해서 작업해보면 그 내용이 웹, 앱에서의 UX/UI 디자인 원칙과도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내 진로인 UX/UI 디자이너를 위한 지식에도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내 포트폴리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기초부터 전문적인 부분까지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웠으며 마지막에는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동아리원들과 서로의 작업물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타인의 시각에서 내 작품을 바라보았을 때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미래의 디자이너로서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는 큰 한 걸음을 내딛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이 경험은 거리가 멀고 바쁜 일정임에도 항상 즉각적이고 친절한 피드백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멘토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며 나도 언젠가 멘토님처럼 내가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후배 디자이너에게 깨달음을 주는 멘토가 되고 싶다.

새내기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은 CTL

컴퓨터공학부 신형찬

CTL 삼육메이트는 삼육대학교 새내기 혹은 전과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을 돕고 싶거나, 저학년 학생이 고학년 학생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하면 알맞은 활동이다.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을 메이트라고 부르고, 메이트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을 리더 혹은 멘토라고 부른다. 삼육메이트를 신청할 때 멘토와 메이트가 한 팀이 되어서 신청서 양식을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월 첫 OT를 갔을 때 학교에 엄청난 어색함을 느꼈고, 그 어색함이 3월 2일 개강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걸 어색해하는 나에게 학과 적응 및 학교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멘토를 자원하신 분과 같이 신청하게 되었다.

삼육메이트는 멘토와 메이트가 서로 약 12주 차 정도의 시간을 메이트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한다. 다른 학교에는 뽀선뽀후 같은 선배 학생이 후배 학생의 적응을 돕는 제도가 있다면, 우리 학교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삼육메이트를 신청하게 되면 멘토와 메이트가 필수적으로 대화하여 활동을 이어나가야하므로 학과 선배와 초면이라 불편하면서도 나름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활동하면서 내가 선택한 학과의 장점 및 미래 전망이나, 학과 선배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무슨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에서 중요한 것들이나 미리 준비해서 가면 더 좋은 것들 등 메이트가 학교생활에 관심이 많고, 학업에 관심이 많다면 멘토님께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정말 많고,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다.

삼육메이트는 보통의 멘토링 활동과 다르게 모여서 공부하거나 결과물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별한 것 같다. 오로지 메이트가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구성할 수 있는 멘토링 활동이다. 나 또한 활동하면서 내가 학교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멘토님께 요청하고, 그 정보들을 멘토님이 말로 혹은 어떤 때는 동행하자고 이끌어 주시는 등 직접 보여주시며 복잡한 내용들을 잘 풀어주셨다. 또한, 교육혁신원 측에서 약 한 달마다 멘토와 메이트 1인당 만 원을 지원해주셔서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인 금전적 부담 없이 멘토님과 만나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냥 스터디룸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 형식적인 대면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음식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며 멘토와 메이트 간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더 남는 시간이었다.

3달여 시간 동안 나름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서 많은 일들이 기억난다. 일단 활동 시작과 활동 마지막에 휴대전화 디지털시계를 들고 멘토와 메이트가 셀카를 찍어야 하는데, 첫 활동 때 처음 보는 사람과 사진을 찍으려니 어색한 기류가 느껴져서 서로 당황했던 기억도 있다.

1주 차에는 대학생 마인드 셋 관련하여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멘토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 설명해주셨다. 2~6차에서는 학교에 적응이 덜 된 멘토를 위해 학교 시설 설명 및 수탁 사용, 교내 장학금의 종류, 수ungs를 활용하여 졸업 계획을 세우는 법, 수강 신청 장바구니 이용하는 법을 알려주셨다. 이 중 수강 신청 장바구니 활용은 2학기 수강 신청에서 잘 이용할 수 있어서 유용했다. 7~10차시에는 학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다. 듣기 좋은 교양과목에 대해서 멘토 본인께서 수강한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주시고, 학과가 컴퓨터공학부이다보니, 'C언어 XXX' 등 독학 때 도움이 되는 전공 관련 도서들을 추천해주셨다. 또한 컴퓨터공학부는 2학년 때 학과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로 나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새내기를 위해 직접 pdf 및 노트로 정리까지 해주시면서 친절히 설명해주신 기억이 난다. 또한 개편된 도서관을 몸소 체험해가시면서 동반하여 도서관 구조나 이용 방법 등을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도 앞으로 몇 년간 쓸 도서관을 정성들여 설명해주셔서 지금 생각해 보면 감동스럽다. 여러모로 궁금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시고, 팁도 많이 주셔서 스스로 노력과 더해 이번 연도 1학기에 좋은 성적을 얻어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삼육메이트 단 하나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다고 감히 비교할 순 없지만, 삼육메이트가 신입생의 관점에서 학교생활에 가져다주는 이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선배와 만남은 OT 때, MT 때, 그리고 학생회에 가입하는 것 말고는 친해지기 힘든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배와 친해질 수 있고 얻어가는 정보가 많다. 메이트가 의사만 있다면 2, 3년 치 학교생활 팁을 다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2023학년도 1학기 CTL 삼육메이트에 참여하여 현역들과 다르게 재수하고 온 나의 첫 대학 생활을 삼육메이트에서 만난 동갑내기 선배와 함께 무난하게 보낸 것 같아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항상 든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한 시간이라 인연이 형성되었고, 2학기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도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어떤 활동이든 아무리 지루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얻어가는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에 붙고 싶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손쉽게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학교엔 여러 선배가 있지만 삼육메이트를 통해 만난 선배님이 가장 친절하다고 느꼈고, 본인의 학업을 하시는데도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어 후배를 챙겨주신 것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1년 내내 학교에 다니면서 수탁 공지 및 비교과 프로그램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이 오픈되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나의 삼육대학교 첫 비교과 프로그램인 삼육메이트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내 먼 미래의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를 기대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해보아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STEP-UP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인공지능융합학부 이재빈

한 학기가 시작되면서 저의 일상은 기숙사 생활로 인해 학교에서의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길어진 학교 생활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동기들과의 시간은 충분히 즐거웠지만, 사실 그 속에서 학업에 집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망이 저를 STEP-UP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여했지만, STEP-UP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은 저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해주었습니다.

STEP-UP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사경고 및 학습 부진 학생들의 학습 동기 증진과 자신감 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멘토와 멘티를 선발 기준에 따라 매칭하여 진행되는 특별한 비교과 활동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멘티는 4학년 선배이자 다른 학과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지만,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공부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친구들과의 공부는 종종 집중이 힘들었지만, 언니와 함께하면 공강 시간에도 저만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멘티 언니는 멘토링 활동 내내 저에게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멋진 존재였습니다.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언니의 배려를 활동마다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멘토였지만, 언니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학교 도서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주는 카페에서 멘토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로 공부에 몰두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더 나은 학습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앉아 공부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누렸고, 학교의 학술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여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에서의 멘토링 시간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저의 학습 동기를 크게 증진시키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함께한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저의 학문적 성장과 대학 생활에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STEP-UP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로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

준에 따라 선발된 저희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상호 지원하며 열심히 활동하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 프로그램에서 좋은 멘티와 멘토가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된 가치가 효과적인 협력과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서로가 가진 목표를 공유하고 힘을 합치고 노력함으로써 저희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STEP-UP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통해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멘토로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나은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멘티 언니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더 나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STEP-UP 멘토링 프로그램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 성장과 협력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며,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종강 후, 마지막 활동이 마무리 된 후에, 언니께서 "오 성적 꽤 많이 올랐어! 한 학기 동안 멘토링 잘 해주어서 고마워 ㅎㅎ 방학 잘 보내고 담학기에도 보면 인사하자"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멘티 언니의 성적이 상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 입니다. 다음 학기에도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길 기대하며 이 비교과 프로그램 덕분에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SU-PANEL 활동

사회복지학과 유다현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재학생 홍보단 SU-PANEL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한 내용을 삼육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 SNS 운영 및 관리, 카드뉴스/릴스(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웹소식지 제작,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행사 및 업무 지원 등의 활동을 주로 한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감하고 소통하며 폭넓은 시야를 가지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고 싶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다. 활동을 통해서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사람으로 준비해 나가고 싶었다. 봉사활동 같은 경험이 많지만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발전하고 싶기 때문에 지원을 하여 2023년 1학기과 2학기에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해에 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어 뜻깊었다.

서포터즈 활동 중 SNS 관리가 있었는데, SNS 관리 및 운영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며 홍보 포스터나 카드 뉴스 제작을 만들어 실제 홍보를 할 때 사용한 경험이 있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160시간 실습을 하였는데 그때 활발히 활동했던 사업 중에 이웃돌봄팀이라는 팀에서 홍보 사업과 온라인 모금회 등을 배우고 실행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의 경험을 되살려 학교 서포터즈 활동도 열심히 해보고 싶었다.

지금까지 183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중 제일 만족스럽고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재학생 홍보단 SU-PANEL이다.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고 부스 행사도 있어서 부스 운영 및 업무 지원을 하며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다. 비대면 및 대면 활동이 적절히 섞여 효율성을 높이며 일을 할 수 있다. 학교에 홍보할 내용이 있다면 카드 뉴스를 가독성 있게 만들어 SNS에 올리는 역할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릴스와 같은 영상을 기획, 촬영 및 제작을 하여 영상을 통해 보기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할 수 있어 좋은 활동이다.

서포터즈 활동 내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관련 행사, 동아리, 프로젝트 등을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이 있어 재미있다. 웹소식지, 월간삼육, 카드뉴스, 릴스, 부스 운영 등 뜻 깊은 활동을 하며 남들에게 정보전달이 목적이지만,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본인은 이제 졸업은 앞둔 학생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가 준비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취업 동아리라는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을 홍보하고 싶어 홍보한 경험이 있다. 취업 동아리는 직무별로 동아리를 구성해 취업 정보를 교류하고, 취업 준비 과정을 함께 해나가는 활동이며, 직무관련 프로젝트를 기획 및 진행하거나, 공모전/대외활동 준비 및 참여 등 직무 특성에 맞는 활동들을 직접 계획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직무 전문가와의 멘토링, 활동지 원금, 마일리지 혜택까지 받으며 취업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취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취업 동아리에 대한 내용을 소식에 담았다. 이 활동을 하며, 비교과 프로그램 동아리 회장, 참여 학생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여 인터뷰도 한 경험이 있다.

인터뷰를 한 결과 동아리 팀별로 각 분야에 따라 활동 내용을 직접 계획할 수 있으며 취업에 관한 많은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채용 공고를 찾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 면접법을 배우는 것, 논문 구성 및 논문 작성법 지도 등 취업에 관한 많은 것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홍보하는 취업 동아리가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내세우며 홍보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고민을 한 결과, 현직 실무자(채용 담당자)에게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전원 피드백 받은 것, 구체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구성 및 완성하는 활동을 나타내며 글을 썼던 기억이 있다. 또한 오직 한 직무뿐만 아니라 본인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다른 직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직무에 관하여 알아가는 시간 또한 있음을 언급하였고 취업이 아직 막연하고, 나이가 어린 재학생들을 위하여 인턴 관련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인턴 준비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관심과 본인의 경험을 연관 지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포부도 자신 있게 작성해야 하는 것 등을 배운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실제 취 인턴 준비를 할 때 적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나타내었다. 또한 면접 합격담을 들으며 면접 준비와 답변에서 유용한 팁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면접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도, 멘토링을 통해 면접의 기본자세와 요즘 면접 추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인 것을 어필하며 열심히 홍보활동을 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웹소식지 내용에 담은 활동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한 학생들로 인해 이것을 이 학생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하며 학생들이 이를 통해 감동받거나,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 선한 영향력을 따라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뒀다. 사회 공헌 활동을 한 세 명의 학생들의 활동을 들여보며, 인터뷰를 진행하여 웹소식지에 소식을 담았다. 이 학생들은 직접 플로깅과 봉사 여행을 기획하여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람에게 의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많이 전파되어 학생들이 이러한 좋은 활동을 배워 실생활에서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웹소식지를 작성하였었다. 이 학생들은 플로깅을 하며 운동도 하며 환경과 건강에도 유익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으며,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학생들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플로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홍보단을 활동하며, 학교에 대한 이해가 더 풍부해질 수 있었으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들을 하며 나 자신이 한층 더 성장했다는 것이 느껴져 굉장히 의미 있었다. 남들을 위하는 일이 나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깊게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

RE : EARTH, 자연과 함께한 소중한 3일

간호학과 진영현

I.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동기

코로나 19가 이어지며 지난 몇 년간은 여행을 갈 수 없는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단비같이 내려온 'Challenge Project'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원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짜고 선정이 된다면 지원을 받아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글로벌사회혁신단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함께한 동기들은 대학교 4년간 함께해 온 소중한 친구 사이인데 한 번도 여행을 함께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졸업하면 각자 사회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더이상 이런 이유로 저희가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을 미뤄둘 수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삼육대학교에 오고 대학생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저희는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계획을 짜 여행을 떠나기로 다짐했습니다! 가깝고도 먼, 한 번도 여행해 보지 못한 지역, 인천의 영종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자연에서 힐링하는 것을 좋아하고, 영종도는 바다와 숲이 함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지구와 함께 호흡하며 즐기기까지 하는 여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에서 힐링, 비건을 통한 환경보호, 도전과 변화"라는 키워드로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친환경 여행을 기획하였습니다.

II.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 첫째 날

영종도 힐링 캠핑장

식사 남김없이 먹기(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개인 수저로 식사

바닷가 산책, 플로깅 후 분리수거 하기

- 둘째 날

캠핑장 플로깅, 분리수거

파라다이스 아트스페이스 전시회

CIMER 온천(친환경 비누 사용)

점심 식사(비건 음식 체험)

저녁식사 플라스틱 사용 ZERO(개인 수저 사용)

- 셋째 날
 을왕리 해수욕장
 돌레길 산책, 플로깅
 카페 음료 텀블러 사용
 비건으로 만들어진 제품 체험

저희는 위의 일정대로 여행을 계획하였고, 바다와 숲에서 플로깅을 통해 주운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기, 바다 생물 관찰하기, 가방을 가볍게 하여 가능한 도보로 이동, 베지테리안 비건 식단 도전,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시키고 남기지 않고 먹기,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 플라스틱 사용 제로, 숙소에서는 친환경 비누 사용, 헌 잠옷 입기, 친환경 칫솔 사용, 외출 시 소등하기, 물 받아쓰기, 냉난방 장치 끄고 자기 등을 여행 중 실천하였습니다.

III. 기대효과

비건(Vegan)은 단순히 채식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류, 화장품 등생활 전반에서 가능한 동물에 대한 잔혹 행위를 배제하려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희는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며 함께하는 여행'을 챌린지 프로젝트의 테마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프로젝트에 선정된 후 팀원들과 의논한 결과, 매일 1개 이상씩 비건과 관련된 행동을 실천하면 좋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바다 생물 관찰, 두 번째 날에는 비건 식사 체험, 세 번째 날에는 비건 제품 체험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첫째 날에는 영종도 해변과 갯벌에 사는 각종 해양생물을 관찰해보았고 두 번째 날에는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버섯 야채 카레와 채식 팟타이로 비건 식사를 해보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평소 쓰던 비건 방식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비누를 사용했으며, 비건 하이dra 제품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vegan의 삶의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습관을 다지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영종도 바닷가의 해안 쓰레기를 줍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일상 속에 일회용품이 정말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플로깅을 통해 환경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을 위한 소비 습관을 위해 카페에 갈 때는 조금의 쓰레기라도 줄이고자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이렇게 팀원들과 환경을 위해 조금이나마 애쓰는 것에 고마움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IV. 프로그램 참여 소감

사실 이전까지 온전히 제 힘으로 무엇가를 기획해 본 적이 없었는데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리더가 되며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팀원들이 계획에 잘 따라와 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 환경을 위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렵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더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느끼며 앞으로도 더 친환경 습관을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것에 더욱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며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있을 챌린지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재학생 분들이 참여하여 저처럼 원하는 목표를 이루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SYU

약학과 안해리

올해 4학년 1학기를 마치면서 2개월이 넘는 긴 방학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입학 후로는 영어 공부를 할 일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방학을 이용해 미뤄뒀던 영어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 토익 및 토플 강의 프로그램 공지사항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집이 먼 편에 속하는 통학러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토익반을 선택했습니다.

글로벌 하계 토익 캠프에 참여하면서 토익 성적 향상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제 유형과 연습문제를 통해 실제 토익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파트1, 파트2의 문법 및 독해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약한 파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 형태가 익숙하지 않아 더 많은 문제 풀이 연습이 필요한 파트이거나 제가 영어 학습에서 특히 약한 부분인 어휘 파트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혼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인식하기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강의를 들으면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로는 혼자 공부할 때의 게으름을 조금이나마 타파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장 강의로 학원을 다니면 가장 동기부여가 많이 되겠지만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소위 혼공(혼자 공부)의 반복된 실패를 뒤로하고 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약간의 강제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인터넷 강의로써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하계 토익 캠프에서는 수업 수강 전과 후에 각각 응시하는 모의테스트를 통해 영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간단하게나마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마친 학생에 한해 수강료 전액 환급 및 1회 토익 응시료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보증금 환급과 시험 응시료 제도 덕분에 스스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방학 내 시험에 한하여 응시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강의 수강한 흐름 그대로 시험에 바로 응시해 향상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 역시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취업진로지원센터와 토익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는 삼육대 학생들만 얻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이런 기회들을 잘 확인해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지난 여름 아주 만족하며 수강했던 영어 캠프 수업을 겨울에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영어회화 실력을 좀 늘려 볼 생각입니다. :-)

삼육대 비교과통합센터에서는 제가 수강한 하계 토익 캠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봉사, 상담 등 학교 생활과 관련한 여러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필요에 의해 참여비용이 드는 프로그램도 있겠으나 어지간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고퀄리티의 강의와 모임과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각자마다 관심분야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검색해보고 참여 해나간다면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의 대학생활에 단지 학점만 남는 것이 아닌, 풍요로운 청춘, 미래 지향적인 대학생으로서 내용물 가득 찬 대학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걸음이 어렵지 두걸음은 쉬워

아트앤디자인학과 임유빈

저는 취.창업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4학년이 되고 나니 자소서 작성을 해야하는 상황이 다가왔지만 처음 작성해보는 자소서가 너무 어려워서 혼자 며칠날은 고민하며 엉망진창 자소서를 작성해왔습니다. 상담을 받기 까지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힘든 자소서를 어떻게 첨삭을 받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다음 스텝이 있는 것처럼 용기를 가지고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이 넘어야 하는 산, 취업입니다. 언제나 막막하게 느껴지던 취업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피하지말고 즐겨라! 자소서 작성이 어렵다면 상담 컨설턴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면접이 어렵다면 이 또한 취창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4학년이 되니 뭔가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나지만 어딘가 느껴지는 이 불안함, 막막함마저도 저는 느낄 수 있을 때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감정마저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학생도 아니고 사회인도 아닌 경계선에서 있는 저는 방향을 못 잡는 것이 아닌 나에게 맞는 방향을 가기 위한 한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나가는 지금 이 순간을 저는 더욱 신중하게 보내기 위해 취창업지원센터와 함께 하였습니다.

첫 자소서 첨삭을 받는 날, 너무 떨려서 상담실 앞을 계속 서성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 즉, 너무 별로니까 다시 써주세요. 라는 말을 듣기 싫었던 저의 회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보니 다시 써주세요. 라는 말은 이제 상담을 통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을 잡았으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쓸 수 있을거야 라는 용기이자 배움을 주려고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다시' 라는 단어를 회피부터 하고 있던 저는 그 단어를 듣는 것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친한 친구의 자소서를 첨삭하러 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개인적인 얘기가 담긴 자소서를 같이 보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사실 되게 눈치없는 행동인거 알았지만 그 친구의 양해를 구하면서 같이 상담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자소서를 읽어봐야 내 자소서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글을 읽다보면 문제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타인의 눈을 통해 글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글도 읽고 내 글과 비교해야 함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4학년이라면 취창업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소서 첨삭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아직도 자소서 쓰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면 가이드 라인이라도 잡아 틀을 맞춰가며 천천히 적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있는 곳이고 우리는 그 학교를 잘 활용해야 후회 없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면 당장 바로 적거나 신청을 해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컨설턴트 선생님별로 조금씩의 상담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 너무 전문적인 분들이고 저도 믿고 저의 자소서를 첨삭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더 발전된 자소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저학년에게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학년은 자소서의 작성란을 넘치게 만들기 위해 경험을 쌓고 직접 몸으로 뛰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고학년은 그 당시의 경험을 모아 자소서 작성란을 채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4학년, 특히 4학년 학우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하나의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꾼다

글로벌한국학과 이시은

평소 글을 쓰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글을 쓰게 되면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종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 글을 쓰곤 한다. 나에게 있어서 글쓰기란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법과 다름이 없는 행위다. 이러한 취미가 더욱 확장되어 나중엔 시, 수필 등과 관련된 대외 공모전에도 참가했다. 명확한 주제가 주어졌기에 글을 더욱 쉽게 쓸 수 있었다. 이렇게 글쓰기와 관련된 교내 공모전이 있는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러 행사들을 둘러보던 도중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마침 눈에 들어왔다.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은 사회적 이슈 사항과 관련 선정된 주제에 대해 자유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ESG, SDG,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포함해 본인이 다루고 싶은 사회 이슈 사항을 고르면 된다. 여기서 나는 지금까지 참가했던 다른 공모전과의 차별점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명확한 주제가 주어졌기에 그에 따라 나의 생각을 맞춰나가야 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주제를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했다. 평소 뉴스를 잘 찾아보는 편이 아니었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내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사회적 이슈를 알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접속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 긍정적인 이슈들보다 부정적인 이슈들이 몇 배는 더 많았다. 그렇게 수많은 이슈들 중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대해 무지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분명 디지털에 친숙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얻는 정보들은 0에 불과했으며, 나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이렇게 나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는 몸을 사리지 않으며 투쟁을 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나는 내가 다루고 싶은 사회 문제에 대해 글을 써내려갔다.

사회에서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왜 이 문제는 계속 되풀이되는지 생각해보았다.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끊어낼 수 있는데 아마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이 결국 무더진 것이 아닐까 싶다. 지금 내가 평화롭게 사는 이 순간에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우린 사소하고 작은 이슈라도 그보다 더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개인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사람이 사

회 문제들을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곤 한다. 하지만, 그런 개인의 관심이 분명 어느 정도의 자극, 촉진제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일상은 과거의 많은 사람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다. 만약 그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생활은 많이 변해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사회 이슈들을 배척해선 안된다.

여러 사람과 사회 이슈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입을 사용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사용해 글을 쓴다면 누구의 의견도 포함되지 않은 오직 자신만의 객관적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나아가 본인도 몰랐었던 기분, 느낌, 생각 등이 어떤지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사회 이슈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고, 감정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을 조금이나마 키울 수 있었으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듯, 사회적 이슈 글쓰기 공모전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과 속마음 등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이 공모전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 또한, 굳이 공모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 일상에서도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